

ACC재단이 만든 ‘아트상품’ 인기 심상치 않네

‘들락’ 지난해 3억3000만원 매출
디자인·실용성 앞세워 ‘급성장’
‘니트 블랭킷’ 증가세 뚜렷 주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운영하는 ACC 문화상품점 ‘들락’(DLAC)이 개점 이후 매출과 상품군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문화상품의 가능성은 입증하고 있다. ACC 문화상품점 들락에는 ACC의 면면을 고스란히 담은 상품과 감도 높은 디자인 제품이 기득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채널 확장을 통해 개점 후 지난해(12월31일 기준) 매출 39억원을 돌파했다.

들락은 지난 2022년 11월25일 사전 오픈한 이후 2023년 6월 30일 공식 개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합쳐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ACC 컬처 스토리 직영체로 바뀌며 자체 문화상품점을 새롭게 오픈한 것이다.

현재 오프라인 상점은 ACC 내 문화정보원 지하 3층(아시아문화광장)에 소재하며, 자체 홈페이지 및 네이버스토어 등을 통해 오프라인 판매 역시 이어가고 있다.

들락이라는 명칭은 Dots and Lines to Asian Culture의 조합으로, 독자적이면서 연결된 아시아 문화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여기서 ‘점’은 사람, ‘선’은 예술을 의미한다.

매출은 2023년 1억1600만원에서 2024년 2억 3500만원, 2025년에는 3억3000만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두드러진 증가세를 기록했다.

들락이 개발한 상품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2023년 33종 95품목에서 2024년 112종 165품목, 2025년 122종 231품목으로 빠르게 확대했다.

들락이 선보이는 문화상품은 ACC의 심볼이나



들락이와 날라이, 시아와 친구들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들.



길상문양을 재해석한 문화상품들.

패턴, 건축적 요소를 재해석한 ACC상품, 전시·공연 등 콘텐츠 연계 상품, 자체 개발한 디자인 상품, 국내에 소재되지 않은 아시아 브랜드를 발굴해 유통하는 아시아 상품, 시아와 친구들 및 들락이와 날라이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군은 가방, 모자, 블랭킷, 엽서, 티셔츠, 팝업북 등 생활 밀착형 아이템이 중심이다. 공공기관이 ACC에서의 문화예술적 경험을 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각각으로 변환한 게 문화상품인 셈이다. 이에 기념품적 성격과 제품의 실용성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들락이 자체 기획한 문화상품 중 가장 인기는 모은 것은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들락 니트 블랭킷’이다. 100×75cm의 활용도 높은 크기에 면 100% 자카드 직조로 제작돼 도톰한 두께감과 부

드러운 감촉을 갖췄다. 여기에 부드럽지 않은 가격대까지 더해져 다섯 차례 리오더가 이뤄질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들락

오픈 당시부터 함께해온 스크린 프린팅 기반 스튜디오 SAA(Screen Art Agency, 이산화·정성훈)가 디자인한 제품이다. 편안함이 깃든 짐을 모티브로 한 패턴과 절제된 색감은 사무실과 집, 야외 등 공간의 제약없이 담요나 쇼파 덮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들락은 지난해 말 ‘들락 WAA 니트 블랭킷’을 추가로 출시했다. 장수와 행복 등 좋은 일을 상징하는 아시아의 길상 문양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잊는 소망’(Wishes Across Asia)이라는 시즌 콘셉트를 담았다. 블랭

킷 외에도 길상문양을 적용한 문구류와 식기류, 공예 소품 등을 함께 선보여 상품군을 확장했다.

ACC 문화상품점 들락은 전시와 소장품의 맥락을 디자인으로 재해석해 ‘갖고 싶은 문화상품’을 만드는 전략이다.

전시 연계 상품의 파격력은 사운드와 오디오 비주얼 아트의 선구자인 료지 이케다 전시를 통해 입증했다. 전시 당시 선보인 의류 컬렉션은 리셀 플랫폼에서 재거래될 만큼 인기를 실감케했다. 료지 이케다의 기존 팬덤과 의류 브랜드 산신기어의 팬층이 맞물린 원-원사례로 꼽힌다. 전시 관람이 상품 소비로, 다시 콘텐츠 확산으로 이어진 구조다.

아울러 문화상품점 들락은 상품점에 입점할 우수한 문화상품도 공모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아시아 문화예술을 활용한 우수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점상품을 공모할 방침이다.

ACC 문화상품점 들락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상품을 선보인다. 길상문양을 활용한 제품군의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오는 3월에 개막을 앞둔 아시아 실험영화·무빙 이미지 전시 ‘아시아의 장치들’과 연계한 문화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지난해 ACC 개관 10주년과 맞물려 ACC 문화상품점 들락 역시 자리를 잡아가며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ACC 관계들이 콘텐츠와 공간 향유 등 좋은 기억을 갖고 들락의 문화상품을 가져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체경 기자 view2018@

역사의 질곡 함께 해온 ‘영산강’을 노래하다

‘영산강 시인들’ 7명 시인 작품 수록 … 출판기념회 31일 목포문학관서

전라도를 관통하며 역사 대대로 오랜 세월 생명수이자 젖줄 역할을 해온 영산강. 전남 담양의 가마골 용소에서 발원한 영산강은 전라도의 대표적 풍토를 이뤄냈고, 전라도 사람들의 기질이 형성된 배경이 됐다.

영산강의 길이래야 129.5km로 4대강은 물론 금강(407.5km), 섬진강(212.3km)보다 짧아서 같은 4대강에 속하는 낙동강(510km)의 5분의 1 정도의 길이에 불과하지만 역사의 질곡을 함께 해온 영산강이기에 전라도의 대표적 서사로 오늘날에도 군림하고 있다.

엠엔박스에서 영산강 이전에 ‘섬진강 시인들’이 지난해 4월 먼저 나왔다. 섬진강을 따라 살아온 백화기 복효근 장진희 박규규 박남준 이원규 등 여섯

시인을 규합해 그 강의 삶과 언어를 담아낸 이 시선집은 단순한 앤솔러리지 사회집이 아니라 지역성과 공동체성이 만나는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걸음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7개월 뒤 나온 게 ‘영산강 시인들’이었다. 섬진강 시인들이 섬진강을 보여줬다면, 영산강 시인들은 그야말로 영산강을 보여준 셈이다. 영산강을 기반 시인들이 이를 뿐이겠는가? 마는 우선 고제종 김선태 나종영 나혜철 박관서 이지담 최기종 시인 등 7명을 한데 묶어 영산강을 아로새겼다. ‘영산강 시인들’은 엠엔박스의 두번쨰 발걸음으로 참여한 시인들은 영산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강을 따라 살아가며 그 속에서 시를 쓰고 함께 공감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삶을 살고 있는 시인

들로 이해하면 된다.

일찍이 유역에 따른 문학분이 제기된 바 있다. 임우기 평론가는 ‘유역문학론’에서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생태적 현실에서 출발해 문학을 도시나 행정에 따른 경계가 아닌 ‘유역’(流域) 곧 강(江)의 물길이 조직한 생활권으로 읽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는 강물의 흐름과 핵심, 퇴적과 하구의 변화

야말로 문학과 예술의 텍스트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라는 통찰로 수용됐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 움직임이 ‘영산강 시인들’인 것이다.

영산강 상류인 담양에 거주하면서 강을 장소로 아니라 마음의 맥박으로 호출한 고제종 시인은 시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에서 ‘강이 우리에게로 흐르던 그 비밀한 자리에/반짝반짝 부서지던 햇살의 조각들이여./삶은 강변 미루나무 잎새들의 파닥거림과/저 모래톱에서 씹던 단물 빠진 수수깡 사이



‘영산강’에서 ‘저녁이면 저 혼자 깊은 울음을 우는/ 삼백리 저문 강물 소리에 귀 기울여 보고/ 흥에 거리 어느 주막에 들어가/ 곰식힌 흥어삼합 얼큰한 애탕에 택배기 몇 잔/ 오래된 옛친구 불러내어/ 꼼을 꾸던 서른 살 청춘의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 읊고 있다.

백학기 시인(영화감독·ABC편집주간)은 머리글을 통해 “우리는 문학을 오래도록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바라보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 오히려 강이 흐르고, 삶이 이어지는 그곳에서 더 깊고 생생한 언어가 태어난다”고 밝혔다.

표지그림은 스토니 강이 맑았다.

‘영산강 시인들’ 출판기념회가 출간되지 3개월여 만에 확정됐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31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목포문학관에서 열린다. 정희정 사무국장(목포작가회의)의 사회로 열릴 출판기념회는 전시공연으로 김평부의 대금산조 및 시소리공연, 김경애 지부장(목포작가회의)과 이제숙 대표(엠엔박스, ABC뉴스)의 축사, 메인 행사인 북콘서트가 펼쳐진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20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 내달 9일까지 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아르코(ARKO))는 2027년 개최되는 ‘제20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전시를 총괄할 예술감독을 2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아르코(ARKO)는 2월 9일 오후 6시까지 제출된 신청서류를 대상으로 3월 중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4월에는 2차 인터뷰 심사에서 전시계획안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를 통해 최종 1인(팀)의 예술감독을 선정하게 된다. 공식적인 예술감독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된다. 접수 인원과 심사 기간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세계 최대 비엔날레 중 하나로 쪽수년에는 미술전 출수년에는 건축전이 번갈아 열리는 국제행사이다.

베니스비엔날레 이사회는 피에트란젤로 부타포 오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바탕으로 미주어 건축 스튜디오(Amateur Architecture Studio)의 공

동 창립자인 왕 슈(Wang Shu)와 류원유(Lu Wenyu)를 제20회 국제건축전 총감독으로 선정했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건축전은 2027년 5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시 카스텔로 공원 및 아르세나ле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지원 신청자는 전시계획서를 참여작가 포트폴리오 등 필수 제출자료와 함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전시계획서 제출양식은 아르코(ARKO) 공식 홈페이지(https://arko.or.kr/main/arko)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202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경 (© 최용준)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수상 작품집 발간

시·소설·아동문학 수록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이 제2회 여수 순천 10·19 평화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발간했다.

이번 작품집은 지난해 5월부터 모집된 작품을 거쳐 최우수작과 우수작으로 당선된 시, 소설, 아동문학 작품들이 수록돼 여순사건의 역사적 아픔을 문학으로 재조명한다.

시 부분에는 최우수상 수상작인 정남희의 ‘등불을 깼던 사람들’ 등 4편을 포함해 최행만, 최봉준의 우수상 작품 등 15편이 수록됐다.

소설 부분에는 장병호의 ‘정광산 부임새’, 김남희의 ‘카멜리아섬, 환생’, 장마리의 ‘10월과 2월 사이’ 등 최우수상과 우수상 작품 3편이 포함됐다.

아동문학 부분은 서이윤의 ‘우리들의 심부름’, 김민선의 ‘할아버지 졸업장’, 정용채의 ‘그린 날’ 등 동시 5편과 동화 2편이 담겼다.

이번 작품집 수록작들은 여순사건의 비극을 단



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발간된 작품집은 전남 도내 국공립 도서관과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이번 작품집 발간을 통해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한 의미 있는 창작물들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